

기업 시스템 제고로 윤리경영 바탕을 만들어라

최근 기업의 윤리경영이 국제적으로 공히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요구되고 있다. 세계화가 심화되고 국경 없는 각종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UN,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윤리라운드를 추진하는 등 윤리문제가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 높아져

국내에서도 기업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여론은 외국과 다르지 않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민주화 흐름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 투명성 문제가 부각되어 윤리경영에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경쟁적일 만큼 정부 부처별로 윤리경영의 법제화,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거나 시행 중이다. 단적인 예로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부터 금융권에 이른바 윤리경영 보고서라 할 수 있는 기업별 사회보고서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기업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윤리경영은 단순한 수사학적 개념이 아니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인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전경련에서 작성한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윤리경영지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이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들고 있다.

먼저 내부 신고제도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현실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진 다국적기업들 대부분은 Hot-line, Help-line과 같은 내부고발제도(Whistle-blowing)를 갖추고 내부신고의 강화에 1차적인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신고자가 익명형이건, 실명



◀ 지난 4월 경남지회 발족식에서 가진 윤리경영포럼의 한 장면

형이건 동일하게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기업의 모순과 부패에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열린 문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총체적 윤리경영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윤리경영에 대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체계적인 법률과 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실정은 체계적인 법률은 미흡하고, 감사, 적발 등의 처벌 위주의 활동이 윤리경영 관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제는 위험관리 수준에서 벗어난 총체적인 윤리경영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로 CEO의 강력한 윤리경영 의지와 지속적 실천이 따라야 한다. 최고경영자와 이사회가 윤리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은 경영진이 직접 일반 직원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윤리경영에 대한 CEO의 솔선수범과 임직원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윤리경영이 기업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윤리경영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행동이 기업과 개인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윤리교육이 필요하다.